



중조 친선 새 장 엮는 데 길림성의 힘 기여

경준해 호옥정, 조선 주재 중국대사 왕아군 회견

5월 19일, 성당위 서기 경준해와 성당위 부서기이며 성장인 호옥정은 장춘에서 조선 주재 중국대사 왕아군 일행을 회견했다.

경준해와 호옥정은 왕아군 일행의 방문을 열렬히 환영했다. 길림성의 경제와 사회 발전 상황을 간략하게 소개한 후 경준해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올해는 중조 수교 75 주년이 되는 해이다. 얼마전, 량당 량국 최고지도자가 확정한 '중조 친선의 해' 계열활동이 정식으로 가동되었는데 이는 우리가 대 조선 교류협력을 한층 더 심화하고 중조 전통친선을 지속적으로 증진하는 데 중요한 계기를 제공해주었다. 우리는 습근평 외교사상을 충실히 실천하고 중앙대의 판공실, 중앙연락부, 외교부의 사업지도하에 북방 개방의 중요한 창구와 동북아시아 지역협력의 중심중추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며 '중조 친선의 해' 계열활동에 적극 협력하고 참여하며 조선과의 지방 래왕을 끊임없이 강화할 것이다. 대 조선 경제무역협력과 인문교류가 날로 심화되도록 촉진하고 중조 친선의 새로운 장을 엮는 데 길림의 힘을 기여하며 실제 행동으로 당과 국가의 외교대가를 위해 봉사할 것이다. 조선 주재 중국대사관이 길림성의 대 조선 교류협력 전개를 대대적으로 지지하고 우리들에게 다리를 놓아주고 련결사



업을 잘하도록 도와주며 공동으로 노력하여 중조 전통친선협력 관계를 잘 수호하고 공고히 하며 잘 발전시키는 데 새로운 더욱 큰 기여를 하기를 바란다.

왕아군은 조선 주재 중국대사관의 사업에 대한 길림성 당위와 정부의 지지와 도움에 감사를 표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표시했다. 길림성은 우

리 나라의 대 조선 교류협력에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고 있다. 조선 주재 중국대사관은 습근평 외교사상을 인도로 중앙외사사업회의 정신과 당 중앙의 대 조선 사업 결책과 포치를 깊이있게 관철 실시하고 길림성이 조선 지방과의 교류왕래와 경제무역 협력을 한층 더 심화하는 것을 대대적으로 지지할 것이다. 길림성에서

'중조 친선의 해' 계열활동을 교류를 촉진하고 협력을 심화하며 친선을 증진하는 중요한 플랫폼으로 삼고 적극 협력하고 주동적으로 참여하여 중조 전통친선협력 관계가 더욱 높은 수준으로 매진하도록 조력하기를 바란다.

리위, 리국강이 회견에 참가했다. / 길림일보

'5.19 중국 관광의 날' 길림성 분회장 활동 사평시에서

5월 19일, 2024년 '5.19 중국 관광의 날' 길림성 분회장 및 사평시 전민 건강달리기 활동 가동식이 사평시 '인홍리' 물임식 문화관광거리에서 거행되었다.

길림성 분회장 활동은 주로 가동식, 사평시 특색문화관광상품 전람전시 활동, 사평시 '길대왕' 관광미식 맛보기 활동, '중국 관광의 날' 문명과 동행' 문명나들이 활동, 성내 각 성(주) '5.19 중국 관광의 날' 주제일 활동 등 5개 내용을 포함했다. 전체 분회장 활동은 물임식 문화관광거리를 구축하는 것을 하이라이트로 삼고 길림성 문화관광업의 새 리념, 새 발전, 새 성과, 새 추세를 충분히 전시했다.

근년래 우리 성은 문화관광 새 자원, 새 하이라이트를 깊이 발굴하고 대중관광을 널리 추동하고 지혜관광을 다그쳐 육성하며 친환경관광을 탐색 발전시키고 문명관광을 적극 창도하면서 문화관광의 심도 있는 융합을 부단히 추진해왔다.

이번 '중국 관광의 날' 기간에 전 성 각지에서는 동시에 아래와 같은 활동들을 진행하여 집은 '중국 관광의 날' 분위기를 전면적으로 조성하게 된다. 장춘 2024년 '국색 모란 활짝 피었네' 꽃구경 잔치, 길림 '산수의 만

남·명스타들 길림으로' 음악회, 사평 '520(吾爱你)' 만인 손잡기 2024 인홍리 제1회 친구 사귀기 친목회, 통화 천막(天幕)미식거리 5.19 선전 순회공연, '그대와 약속' 백산에서 마윌것 즐기기 활동, 송원 2024 차간호 춘나비(春捺钵) 물고기잡이축제, 제6회 장백산 라이딩(骑行) 문화주-'5.19 중국 관광의 날' 천지 이북에서 자전거 달리기 활동, 매하구 지북춘 제2회 정월음악제 등 여러가지 문화관광 활동 119가지를 진행한다. 이외에도 문화관광 소비권 발급, 풍경구 입장권 우대, 로인, 장애인 돕기 조치, 선진군체 우대 조치, 현장 우대 활동, 공익성 문예공연과 공공문화장소 확대개방 등 관광혜민조치 114가지가 있다.

19일, 사평시의 분회장 활동이 가동된 후 전민건강달리기에 참가한 500여명 시민들은 선전 주제 통일북장차림으로 활동 회장에서 출발해 건강달리기를 진행했다. 길림성 및 사평시 문화관광부문 간부와 직원, 문화관광기업 대표와 여러 대학교 학생 및 관광객들이 '인홍리' 물임식 문화관광거리에서 자전거 '라이딩 무대' 도전 경기를 펼쳤다.

/ 길림일보

연변의 2개 향진

성공적으로 국가농업산업강진에 선정



최근 농업농촌부와 재정부는 2024년 농업산업융합발전프로젝트 항목립안 명단을 발표했다. 연변조선족자치주 돈화시 황니허진(목이버섯)과 화룡시 팔가자진(상황버섯)이 2024년 국가농업산업강진에 성공적으로 선정되었는데 매 향진마다 1,000만원의 중앙재정자금을 장려받게 된다.

돈화시 황니허진은 목이버섯 재배를 선도산업으로 하고 있는데 산업강진 프로젝트의 시행을 통해 목이버섯

의 생산능력을 효과적으로 증가시켜 목이버섯 재배량이 년간 약 2억포대에 달한다. 상황버섯산업이 위주인 화룡시 팔가자진은 프로젝트의 시행을 통해 현지 상황버섯 정밀가공 능력을 크게 향상시켜 제품의 심층가공률을 95% 이상에 도달시켰다.

지금까지 연변에서는 총 6개 향진이 국가농업산업강진으로 지정되었다.

/ 길림일보

이미 발급한 주택공적금 대출 래년부터 새 금리 적용!

일전에 개인주택공적금 대출금리가 0.25% 포인트 인하되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을까? 주택도시농촌건설부 공적금관리사 해당 책임자는 18일 새 정책은 대출상환자 주택 지원을 해결하는데 있어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표시했다.

100만원, 30년의 첫번째 개인주택공적금 대출을 레로 들면 원리금 균등 상환 방법을 선택했을 경우 월 상환금액이 4270.16원에서 4135.57원으로 약 135원 줄어든다고 총 리자 지출이 4만 8,500원 감소한다. 이로부터 주택구매자는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소개에 따르면 대출금리 조정 범위에는 새로 발급한 개인주택공적금 대출과 이미 발급한 개인주택공적금 대출이 포함된다고 한다. 2024년 5월 18일 이전에 발급한 개인주택공적금 대출은 2025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금리를 적용하고 2024년 5월 18일(포함) 이후에 새로 발급한 개인주택공적금 대출은 조정된 새로운 금리가 직접 적용된다. 주택도시농촌건설부는 도시주택공적금관리센터에서 규정에 따라 정책 련결을 잘하여 대출상환자들이 가능한 한 빨리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인민넷

제 1 회 동북도서교역박람회 성공적으로 마무리

5월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간 제 1 회 동북도서교역박람회가 장춘 국제회의전시센터에서 펼쳐졌다.

제 1 회 동북도서교역박람회 개막식에서 성당위 부서기 오해영이 축사를 하고 중국출판그룹 총경리 상발, 성인대 상무위원회 부주임 류금파, 성정협 부주석 오정평 및 중공중앙 선전부 관련 책임 동지들이 참석했다.

오해영은 축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습근평 총서기는 사상문화선전사업에 깊은 중시를 돌리고 새시대 문화건설을 둘러싸고 일련의 새로운 사상, 새로운 관점, 새로운 논단을 제기함으로써 우리가 새로운 문화사명을 짊어지는 데 강대한 사상무기와 과학행동지침을 제공했다. 우리 성은 습근평 문화사상과 습근평 총서기의 동북시찰과 길림시찰 시의 중요연설, 중요지시정신을 깊이있게 관철착각하고 당의 혁신리론으로 전당을 무장하고 인민을 교육하는 이 선차적인 정치임무에 초점을 맞추어 문화강성건설과 서항사회 건설을 대대적으로 추진하며 주제도서로 주류가치를 고양하고 정품과 가작으로 열독 기풍을 선도할 것이다. 중국이야기를 잘하고 길림의 이미지를 보여주며 인민들의 사랑을 받는 우수한 작품들을 지속적으로 출시하여 '영원히 막을 내리지 않는' 도서교역박람회를 다원화하여 구축하고 더욱 많은 량질 도서들이 천가만호에 들어가도록 끊임없이 추진하여 광범한 인민대중이 더욱 많은 문화발전 성과를 향유하도록 함으로써 길림의 전면적인 진흥에 강대한 정신적 동력을 주입할 것이다.

'길림에서 만나 책의 향기를 함께 누리자'(相约吉地 共沐书香)를 주제로 한 이번 도서교역박람회는 주전시장에 12개 전시구역을 설치하고 성내 12개 시, 현의 신화서점에 분전시장을 설치함과 아울러 16개 온라인 분전시장을 개설함으로써 온·

온·오프라인 방문자 연인원 390 만명, 판매액 2.15 억원

45 개 프로젝트 계약 달성, 투자금 64.9 억원, 성외자금 57.9 억원 유치



오프라인이 상호 융합되는 열독문화플랫폼을 전면적으로 구축했다. 도합 600 여개 참가단위가 40 여만종의 출판물을 전시회에 내놓았고 최근 몇년간 출판발행 등 사업에서 이룩한 풍성한 성과를 전면적으로 전시했다. 21 차례의 중점활동을 앞세워 준비하고 개막식에서 5가지 활동을 중점적으로 발표, 가동했으며 도서 기증, 해민도서구매카드, 해민도서구매권 발급식도 가졌다. 도서교역박람회 기간에 신간 발표, 명가 인터뷰, 전문가 포럼, 연구체험, 무형문화유산 전시, 문예공연 등 형식이 다양하고 내용이 풍부한 109 개의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동북지역의 '문화명함'을 한층 더 빛내고 광범한 독

자들에게 정제로운 문화향연을 선물했다.

알아본 데 따르면 19일 오전 10시 까지 이번 도서교역박람회의 온라인, 오프라인 방문자수는 연인원 390 만명에 달했고 총 판매액은 2.15 억원, 관내부속교회회(馆配交易会)에서 선택한 판매액은 1.75 억원에 달했다. 길림성문화산업투자유치대회에서 45 개의 프로젝트 계약을 달성했는데 총 투자는 64.9 억원에 달했고 57.9 억원의 성외자금을 유치했다.

이번 도서교역박람회에서 량효성,

진언, 리이, 동서, 축융 등 유명 작가들이 독자들과 함께 문학 발전의 새로운 장을 공론했고 장춘영화촬영소 악단, '설병후(雪崩猴)' 등 인기 연예인들이 정성을 다해 성원했다. 또한 《길림전서》 편찬문화전승프로젝트 가동식, 디지털출판포럼, 명가문학포럼 등 130 여차례 업체 행사를 개최했는데 그중 '도서교역박람회의 하루' 등 4개 분야 연구활동에 참가한 인원수는 2만명을 넘었다. 각 전시장들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일련의 도서 우대 혜택 활동을 전개했으며 성과 시 정부에서 우대 도서 구매카드와 상품권 500 만원을 발급했다. 북방울람공익기금회는 성내 학교 도서관들과 500 만원의 도서 기증 의향을 달성했다.

도서교역박람회 현장에서 '2024년 도 길림성 제일 아름다운 서점' 선정 결과를 발표했는데 매하구시신화서점, 화천시 신화가 박열서원, 길림성 신화서점 농안현점, 길림 7사(吉関七舍), 길운현문화종합체, 연가우·장투어 1958 점(言儿又·长拖 1958 店) 등 13개 서점이 입선되었으며 그중 3개 서점은 선후로 전국 년도 제일 아름다운 서점에 입선되었다.

폐막식에서 '나와 책의 이야기' 웅변대회, 도서교역박람회 '우수자원봉사자' 시상식도 열렸다. 웅변대회는 소학팀, 중학팀, 대학팀, 사회팀 등 4개 조별로 나누어 1등상 6명, 2등상 9명, 3등상 11명을 선정했다. 장춘사범대학이 '우수조직단위' 영예를 따내고 관련 조직과 개인들이 제 1회 동북도서교역박람회 '우수자원봉사조직'과 '우수자원봉사자' 영예를 획득하였다.

/ 유경봉 오건 류향취 손맹번 기자

제 1 회 동북도서교역박람회 관련 기사 4-5 면